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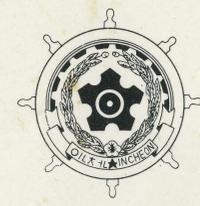
민속극
경신역마놀이



第23回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
出 演 作 品

82. 10. 27, 15:50~16:20
노 천 무 대



仁 川 直 轄 市



人事의 말씀

豊饒를 驅歌하는 季節을 맞아 民俗의 祭典인 第23回 全國民俗芸術競演大会가 온 겨레의 祝福속에 이곳 仁川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恒常 우리 고장의 傳統文化에 矜持와 자랑을 느끼며 여기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내고장의 繁榮을 앞당길 수 있는 精神的 資源이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 仁川直轄市가 선 보이는「慶信驛馬놀이」는 산대도감 系列에 屬하는 놀이와는 전혀 性格이 다른 仁川特有의 것으로서 이번에 처음 發掘한 傳承民俗이라는 데 더욱 큰 자랑을 갖습니다.

이제 우리는 民俗芸術을 통해 傳統文化에 스며있는 끈질긴 意志와 不滅의 創造力을 기르고 啓發하여 未日의 새로운 民族文化를 再創造하기 爲해 온 精熟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 棧會가 우리 仁川直轄市 民俗芸術의 참된 얼을 理解하시는데 一助가 되리라 믿으며 더욱 아낌없는 聲援과 鞭撻을 懇切히 期待하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

1982. 10

仁川直轄市長 金 璨 會

경신역마놀이

- 発掘: 김진엽
- 構成演出: 이선주



* 沿 源

慶信驛馬놀이는 本是 仁川の 主驛이 있었던 驛路 重林道の 屬驛 慶信驛(남구 만수동 경신마을에 있었음)에서 驛卒들에게 騎用馬 다루기와 馱馬에 貢物싣기를 春秋 二회에 걸쳐 訓練하기 爲하여 實施한 調

鍊方式에서 派生한 놀이로 언제부터 있었던 것인지는 確實치 않으나 慶信驛이 朝鮮王朝 初期에 생긴 것으로 보아 朝鮮王朝 中葉初부터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 놀이가 慶信마을에 있었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는 理由는 놀이 內容에 貪慾, 貪色을 일삼는 역승과 驛吏를 야유하고 빈정대는 대목이 있어 官의 눈을 피해 어찌다가 놀았기 때문에 제대로 傳해 내려오지 못한 것이라 推測된다.

* 解 說

이 놀이는 馭卒들이 논 舞劇의 一種으로서 춤이 主가 되고 몸짓과 才談이 따르는 舞劇의 形式으로 짜여져 있으나 다른 民俗舞劇이 여러 마당으로 짜여지고 假面을 쓰거나 擬人物을 登場시켜 兩班社會를 야유하고 희롱하지만 이 놀이는 下賤人으로 賤待 받는 馭卒과 그 家族이 馭卒차림과 平素의 차림으로 登場해서 貪慾과 貪色에 찌드는 兩班階層의 現實을 익살과 웃음 그리고 才談을 通해 야유하고 희롱하는 한편 천덕꾸러기 馭卒들의 울분을 스스로 달래는 內容을 한 마당으로 엮은 것과 北部地方의 거친 춤사위나 南部地方의 폭넓은 춤사위에 비해 폭도 과히 넓지 않고 거친 춤의 動作도 아닌 中部地方의 잔잔한 기질을 엿보게 하는 나긋한 춤 가락이 이 놀이의 特色이다.

* 줄거리

1. 역승과 역리가 출타한 틈을 타서 역졸과 그 가족들이 동리 마당에 모여 놀이를 벌인다.
2. 무슨 놀이를 놀것인지를 서로 의논도 하고 여러 놀이를 선보이지만 기용마타기와 타마 다루는 놀이가 좋을 것이라고 의견의 일치를 본다.





3. 기용마 타기와 타마 다루기 놀이를 벌일 무렵 호색한 역리가 역졸의 아내를 꺾어차고 등장한다.

4. 역졸의 아내를 금품공세로 달래지만 역졸 아내는 좀체 역리품에 안기지 않는다.



5. 기용마를 타려던 역졸이 제 아내인 줄 알고 여인을 달래지만 호색한 역리에게 쫓겨난다.



6. 역승이 등장해서 역리를 벽지 잔역으로 쫓아 내겠다고 위협해서 내쫓은 다음 역졸의 아내를 살살 구슬러 계집을 차지하려하나 타마를 다루던 동료 역졸이 역졸 아내를 타마에 싣고 도망치고 역승은 닭 쫓던 개 모양 놀이마당에서 멀쑥해서 사라진다.



7. 천민을 괴롭히는 탐음 호색한 양반내를 쫓아 냈으니 마음놓고 한바탕 놀아 보자고 등장인물 일동이 나와 춤을 추며 놀이를 벌인다.

* 出演者 名單

음악 및 무용지도 이 선 주

도놀이꾼 봉 두 개
 역 승 신 춘 복
 역 리 이 원 달
 아 낙 이 선 주
 역 줄 | 김 형 전
 애 꾸 눈 심 은 수
 턱까불이 김 국 진
 기용마앞 백 성 철
 뒤 황 재 수
 타 마 앞 흥 기 영
 뒤 유 호 식

동리사람 흥 윤 정
 이 정 순
 이 명 신
 남 기 미
 김 영 실
 유 현 준
 최 효 순
 오 현 숙

악 사
 소 금 박 희 양
 북 조 원 선
 징 최 삼 용
 장 고 이 영 열
 피 리 이 용 휘

기 획 : 예총인천직할시지부
 총지휘 : 진 용 하
 발굴자 : 김 진 엽
 의 상 : 유 억 근

